



[산업동향] 英 당국, 임시비자 발급에 대한 업계 요구 미수용

- 유제품 등 식음료 유통 차질로 일부 메뉴 품절 사태, 공급망 차질 우려 커져



영국내 자가격리 근로자 증가로 인력난이 심화되며 공급망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낙농 및 식음료 업계가 정부에 EU 대형트럭 운전자를 위한 임시 비자를 허가해달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알라푸드 등 유업체는 대형트럭(HGV) 운전자가 부족해 유제품이 매장에 유통되지 못하고,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밀크셰이크가 품절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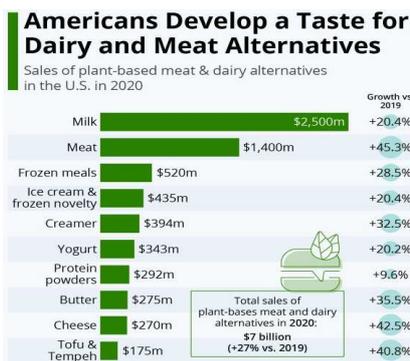
이에, 낙농업계는 물론 식음료업계 및 운송업계는 식량부족과 폐기물 발생 문제를 예방하고 공급망 정상화를 위해 정부 측에 EU 대형트럭 운전자 대상 임시 비자를 발급해 운전자 부족난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편,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접국가의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국내 근로자를 고용해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자 규정 검토를 보류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 thecattlesite.com, 8월 30일자 >

[소비동향] 美, 식물성 대체식품 판매 증가세

- 지난해 식물성 대체우유 판매량 20% 증가...대체육류 판매도 45% 늘어



미국 소비자들의 식물성 대체식품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전문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탄소배출 저감, 알레르기, 동물복지 등을 이유로 동물성 유제품 및 육류 섭취를 줄이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식물성 대체우유 판매량은 20%, 대체육류 판매량은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식물성 육류 및 우유뿐만 아니라 동물성 제품의 맛과 질감을 모방한 대체식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우유 또한 치즈,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유제품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동물성 식품 섭취를 줄이고 채식주의자 등 식물성 대체식품 소비를 늘리는 소비자들이 확대됨에 따라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earth911.com, 8월 30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